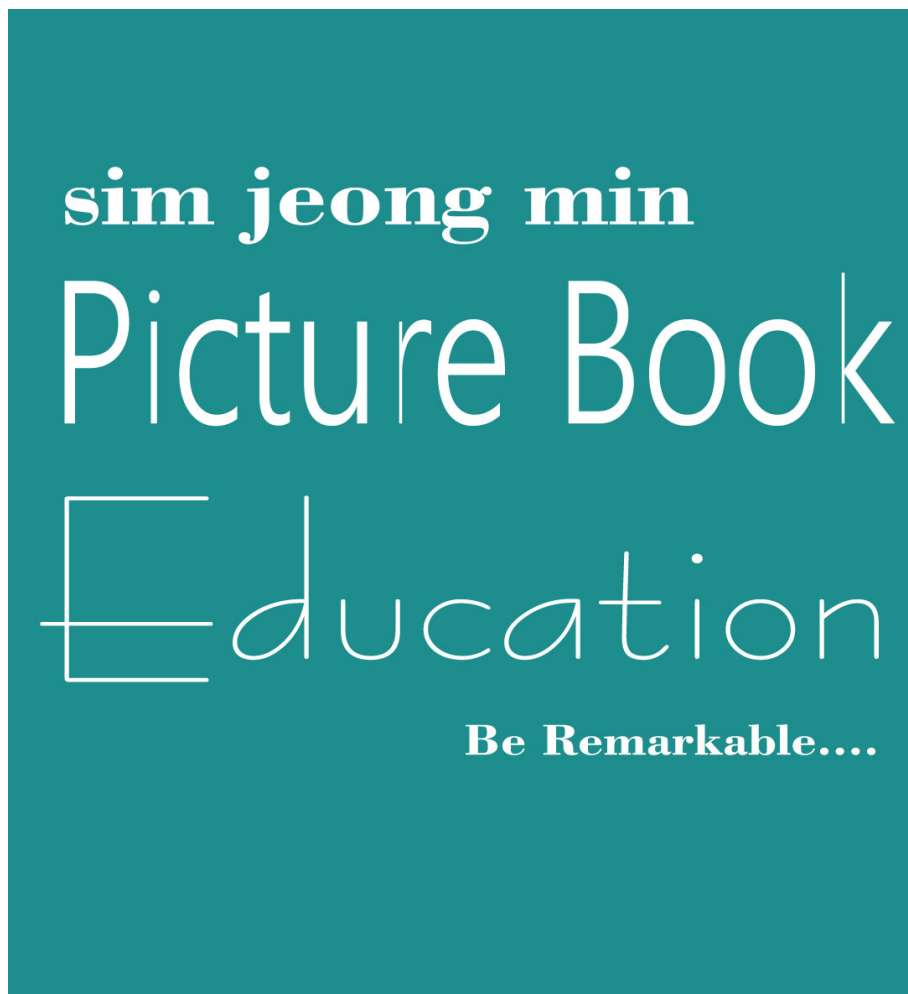


하늘을 나는 그림책 PEC 프로그램 수행

단계의 개념을 이해하자. (1)

키워드 인식&단계별 주제망의 개요 설명



자료 출처: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개발 출판부 20140500번

심정민 그림책 교육 연구소

1. 그림책을 단순히 읽고 내용 중심의 워크지(학습지) 활동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모에게 말하라. 그림책에는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를 발견하는 방법부터 책의 깊이 읽기는 시작되며 키워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은 융합적으로 전개된다.

1) 한편의 그림책에는 10개~30개 정도의 키워드가 있다. 그 키워드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사고의 연관성과 어휘력은 향상된다.

-키워드 인식은 왜 필요한가?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는 키워드를 무조건 외우게 한다. 스스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는 어린이는 스스로 책을 보는 재미를 안다. 그리고 그 키워드들을 연결지어 나름대로 다양한 배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즐겨한다. 이것은 8세 이후 학습이 시작될 나이에 더욱더 성과를 보인다. 즉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공부는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핵심파악을 해서 그 핵심을 머릿속에 연결 지어 기억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지금부터 필요하다. 그림책을 보면서 키워드 인지는 필수이다.

키워드 인지하기까지는 섬세한 교육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빠른 아이들은 3개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되면 키워드 인식은 서서히 하기 시작하나,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은 그 다음 부터이다.

.....

2. 키워드를 발견하고 키워드를 활용하라. 그것은 기본 주제망을 시작으로 각 그림책별로 이야기의 구조를 잡아가는 것이다.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 Theme Web은 다르게 구성된다.

#### 1단계: 기본 주제망 설계 작업

-거미줄 망이라고 한다. 기본적인 주제망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단순설계하면서 키워드 인식 단계에 활용한다.

-그림책을 깊이 있게 읽어낼 수 있는 풍부한 스토리텔링 능력을 향상시킨다.

(주제망 설계와 프레임 구성으로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의 흥미를 느끼고 자신의 의사표현력을 향상 시킨다.)

#### 2단계: 도형을 활용한 모형 중심의 설계 작업

-기본도형(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또는 도형을 변형하여 다이어리나 종이 등에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 구조를 잡는다.

-도형을 활용한 모형 중심의 설계는 메이킹 게임의 놀이로 추후에 활용하며 **나만의 스토리텔링 만들기의 원칙**을 터득하게 된다.

#### 3단계: 이야기 구조(나열형, 계단형, 병행형, 복합형)

-메이킹 게임 활동을 어느정도 워드로 옮겨가면서 하게 되면 그림책의 이야기 구조를 자연스

롭게 알게된다. 즉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완성되는 문장의 구조, 문장과 문장의 조합으로 완성되는 스토리의 구조를 알게 된다. 이것을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는 100% 언어 중점 교육으로 각 그림책을 1,2단계의 주제망 설계가 아닌 이야기 구조로 설계하는 법을 작업하면서 그림책의 이야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문제인식, 다양한 해결책, 분석능력, 예측하고 추론하는 능력, 평가, 독창적인 재구성 등)을 키워준다.

-이야기 구조에 따라 수학스토리텔링의 기초과정을 도입하여 위 4개의 유형별로 **스토리텔링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며 수업한다.

#### 4단계: 독창적 프레임 구성의 도식화작업

-독창적 프레임은 상징적으로 도식화하는 작업이다. 도식화는 이야기의 중심상황들을 프리젠테이션의 PPT를 만들 듯 요약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이는 **창의적 사고**의 모든 교육요소를 완벽하게 수업으로 풀어간다.

#### 5단계: 그림책의 구조+나만의 변형 구조

-그림책의 구조와 나만의 변형 구조를 만들어 그림책의 지식과 상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놀이 구안의 방법을 알려준다.

즉 지식과 상상을 적절하게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는 사고력을 발휘시키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그림책의 다양한 게임을 언어적(자율적), 수학적(규칙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한다.

위 theme web수업은 making game과 병행되어 수업한다.

위 theme web수업은 단계별 storytelling과 병행되어 수업한다.

위 theme web수업은 단계별 debate와 병행되어 수업한다.

위 5단계의 theme web수업은 위 3가지 활동과 병행하면서 아이들의 사고능력을 그리고 책을 다양하게 접하는 사고적 훈련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킨다.

[theme web 단계별 교육 시작 시기]

기간	3개월	6개월	12개월(1년)	1년 3개월	1년 6개월
1단계					
2단계					
3단계		8개월쯤 시작			
4단계					
5단계					

용어 개념 정리)

①[나만의 스토리텔링 만들기의 원칙]은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 단계별 방법이 있다. 나만의 스토리텔링은 주어진 주제에 대해 나의 경험을 문제에 적합하게 제시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면서 기본 배경(스토리)을 더욱 풍부하게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메이킹 게임의 확장놀이 시 게임스토리 만들기로 연계(수업7개월 후 부터~)된다.

②[스토리텔링을 수학적으로 접근하다]의 기초 개념은 등장물이 몇 개인지 상황은 어떻게 변했는지, 감정의 변화는 어떤지 등등... 언어적으로 제시되는 원칙 내에서 수를 발견하는 것이다. (수학스토리텔링은 수업이 진행될 때 활동중심으로 연수하려함.)

### 엄마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하늘을 나는 그림책의 그림책 활용은 깊이 있게 그리고 제대로 책을 보는 방법을 아이들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어휘의 양을 늘려주고 언어표현력을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키워줍니다.

책을 볼 때 키워드를 활용한 책보기는 전혀되고 있지 않다. 현재 시대의 키워드가 창조인재, 융합형 사고력, 감성인재,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왜 이 시대의 키워드에 능력을 갖추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책이라는 매체를 너무도 단순하게 학습지풀이, 퍼포먼스 놀이로만 풀어서 그런것이다. 키워드 인지는 기본이다. 키워드 인지를 통해 그림책의 그림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을 생각해야하는지 사고의 구체화 작업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아이들이 그림책의 키워드를 스스로 발견하면서 그 키워드를 활용하여 굉장한 말하기(자신감있는 언어구사력, 전달력있는 명확한 언어구사력 등) 스토리텔링 능력이 향상되고 그 키워드의 의미를 다양하게 연상하면서 특성을 파악하여 상징화하고 그것을 게임으로 만들어내는 자율적 사고까지 진행을 하는 수업이다. 아이들의 뇌는 움직여야한다. 생각 또는 단순생각이 아닌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한다. 복합적 사고의 구조는 규칙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것이다. 하늘을 나는 그림책 교육이 바로 이것이 기본 과정이며 이 기본과정만 1년6개월 정도 지속된다면, 당신의 아이의 창의적 사고와 책을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력은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이후의 교육과정은 분석 중심의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위 밑줄 그어진 부분이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저것을 완성하는데 시간은 꽤 걸립니다. 수집권의 책을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와 주제와 소재로 이 교육과정을 실천합니다.

위 파랑색의 5개는 단계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저 5개의 요소는 제일 중요합니다.

## ■ 말하기와 스토리텔링의 차이점

말하기는 내가 지금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하기입니다. 즉 언어적 발현을 말합니다. 모국어의 발현능력을 꽤나 중요합니다. 발현능력이란 적절한 어휘사용과 적절하게 말하기, 상황에 맞는 말 즉흥적으로 표현하기 등입니다. 말하기의 기본은 말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특히 10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놀이여야 하고 말하는 것이 그냥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어적 발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기가 아닌 제시된 문제, 즉 머릿속에 말하고자 하는 다양한 소재들이 이어지고 이어져 핵심을 전달하면서 6하 원칙에 맞아야 하는 그런 방식의 말하기를 의미합니다.

언어적 발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스토리텔링은 잘 할 수 있습니다.

.....

언어교육은 명확하게 용어의 개념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엄마들에게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가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고 그 개념을 풀어가듯이 교육설명을 해주어야 엄마들이 차이점을 알아듣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상담자가 말하기와 스토리텔링의 차이도 모르고 교육상담을 하면 엄마들 또한 아이가 말 좀 잘 하게 되면 그 수업은 절대 지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언어적 발현 능력이 부족하다 인식을 시키고 그 언어적 발현은 일반적 아이들의 경우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빠르게는 8회~10회 정도의 수업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차와 성격차는 있지만 2회~30회 정도 수업을 하면 언어적 발현은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상담하실 때 중요한 점은 수업을 시작하는 아이의 수준 즉 특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 아이가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관찰해야만 모든 수업은 신뢰를 얻게 됩니다.